



코로나19 확산 전후

경제지표로 살펴본 韓가계·기업 체감경기

- ◆ 전세계적으로 '코로나19' 확산세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, 업종 특성상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외식·숙박·여행 등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부정적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
- ◆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現시점에서 체감하는 경기동향을 소비자동향, 기업경기실사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('20.2월 기준)

- (현황) 現코로나19 발병상황은 WHO '팬데믹 위험 매우 현실化', CNN '팬데믹*(Pandemic, 세계적 대유행)' 이라고 언급하며 공포 확산 中

* ①추이	전세계 114,359, 中 80,754, 伊 9,172, 韓 7,478(3.10일 9시)
②정의	세계보건기구(WHO)의 전염병 경보(1~6등급) 중 최고 위험 단계인 5~6등급 의미, 現4등급
③근거	누적환자 10만명↑, 사망자 3천명↑, 중국외 신규환자가 중국내보다 9배 多, 남극외 모든 대륙에서 발병 등

- (팬데믹時) 국가間 교역규제 강화가 무역분쟁으로 연결될 우려
 - * (신종플루例) 中, 전염 우려로 미국産 돈육 수입제한('09.5월) → 美, 중국産 타이어 보복관세 부과('09.9월)
 - 향후 국가間 이동제한 등 강도 높은 전염병 대책 시행으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심화될 가능성 상존
 - ※ 다만, WHO의 조치는 강제력 없는 권고조치, 신종플루時 국가間 교통·무역 제한은 不권고
- (韓금융)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과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KOSPI Δ4.2% (3.6→3.9일, 2,040→1,955pt), 원/달러 절상(1,190→1,204원), CDS 상승(38→47bp)

- (전망) 1/4분기 韓경제성장률은 ①관광·항공산업 부진 ②대외수요 약화 ③공급망 교란 등으로 약 0.7%p 감소*

* 골드만삭스 : 관광 Δ0.2%p, 중국 수요 Δ0.1%p, 공급망 교란 Δ0.3%p

- ① (관광·항공)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수입의 감소로 중국 및 동남아 의존도가 높은 저가항공과 여행사들의 도산위기까지도 확산 우려
- ② (도·소매)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점은 직접 타격,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고객 감소, 소매·숙박·음식업 등 소상공인 피해도 더욱 커질 우려

③ (공급망 교란) 현대·기아차 등 국내 현지공장은 일부 생산을 재개했으나, 수입대체선 및 국내 생산을 통한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

⇒ '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.4 → 1.5%로 급락 가능성 제기(OECD, 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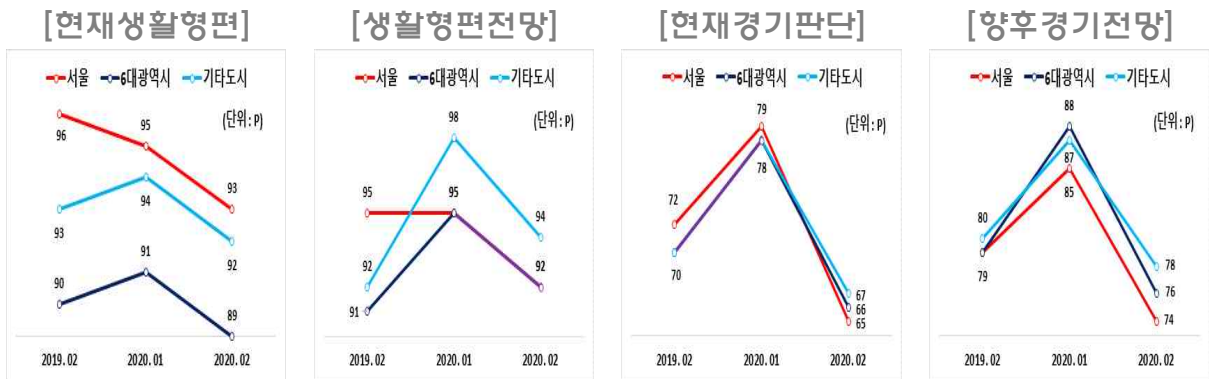
⇒ 코로나19로 中생산 둔화* → 전세계 수출액 500억달러 감소(UNCTAD, 34일)

* '20.2월 中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으로 중국내 제조활동을 일시 중단시킴

(단위 : 달러)	주요 내용
국가별	• EU △156억, 미국 △58억, 일본 △52억, 한국 △38억 順
산업별	• 기계 △95억, 자동차 △70억, 통신장비 △53억, 정밀기기 △44억 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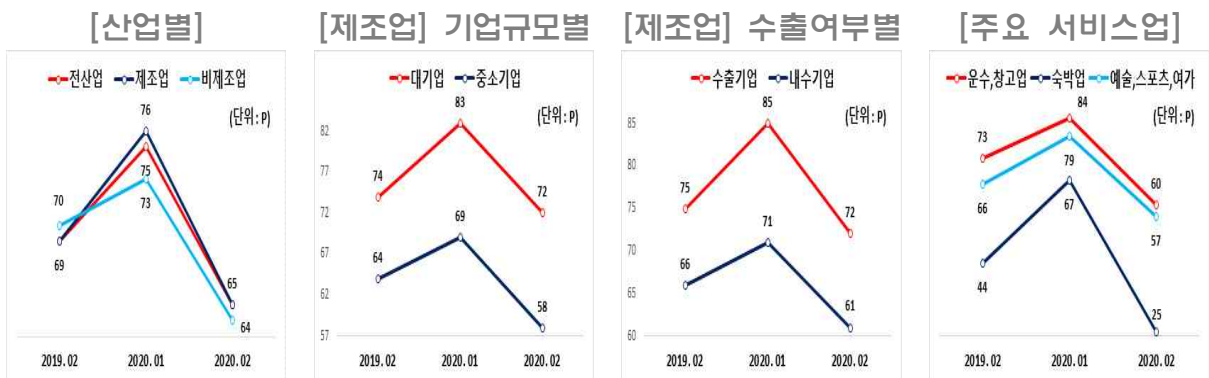
□ (영향) 韓체감경기는 업종 특성상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외식·숙박·여행 등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'코로나19'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

① (가계) '20.2월, 소비자 체감수준은 쏠지역에서 감소, 특히 현재경기 판단 및 향후경기전망의 경우 他지표에 비해 급격한 감소세



자료 : 한국은행, 소비자동향지수

② (기업) 제조업보다 서비스업, 대기업보다 중소기업,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이 낮게 나타났고, 서비스업중(운수·숙박·여가 등) 영위기업이 급격한 감소세



자료 : 한국은행, 기업경기실사지수

(작성자 : 경제금융팀 차장 곽동철 fitlab@ibk.co.kr / ☎02-729-6859)